

# 산악 사고 사례

## 1. 설악산 한파·저체온증 조난(2 명 사망) — 2023-12-16~19

### 1. 사고 개요

영하권 한파 속 설악산 산행에 나섰던 산악회 회원 2 명이 실종 후 사망한 채 발견됨.  
저체온증에 의한 동사로 추정.

### 2. 원인·경위(보도 기준)

혹한·설로 인한 체온 저하와 피로 누적으로 안전지점 도달 실패, 야간 저체온 진행 추정.

### 3. 신고·초동

가족·동행 신고 후 소방·경찰 합동 수색 착수.

### 4. 구조·응급

수색대가 실종 지점 인근에서 순차 발견·수습, 현장 사망 확인.

### 5. 기관 역할

경찰·소방 합동 지휘, 국립공원 관계기관 협조.

### 6. 현장 안전·대응 지침(핵심)

혹한기에는 **일찍 출발·조기 하산**, 체온·습윤관리(속건의·여벌장갑), **야간 산행 금지**,  
체온 저하 징후 시 즉각 후퇴·보온·연료 보충.

### 7. 후속 조치

겨울 등산 안전수칙·장비 점검 강화 권고.

.

## 2. 북한산 인수봉 암벽 추락(연쇄 사고) — 2025-05-31~06-02

### 1. 사고 개요

북한산 인수봉에서 주말 사이 **사망 1·부상 2** 등 추락 사고가 연이어 발생. 별도 동호회 소속 등반자들로 확인.

### 2. 원인·경위(보도 기준)

하강 중 추락 등 로프운용·확보 중 실수 추정(정밀조사 중).

### 3. 신고·초동

현장 동료 신고 → 소방 헬기·구조대 현장 투입.

### 4. 구조·응급

부상자 헬기 이송, 다발성 골절·출혈 환자 응급처치 후 병원 이송.

### 5. 기관 역할

소방·경찰 합동 조사, 국립공원 특별구조대 지원.

### 6. 현장 안전·대응 지침(핵심)

하강·확보 시 **파트너 체크 3 종(매듭·하강기·앵커)**, 백업 매듭/프루지크, 하강전 **커뮤니케이션 콜** 표준화, 헬멧 상시 착용.

### 7. 후속 조치

코스별 사고 다발 구간·하강지점에 안전안내 보강, 동호회 리더 교육 강화.

### 3. 설악산 암벽 추락 사망 — 2025-08-03

#### 1. 사고 개요

인제군 설악산 몽유도원 지구에서 암벽 등반 중 약 60m 추락, 구조 3 시간 후 사망.

#### 2. 원인·경위(보도 기준)

고도 노출 구간에서 추락(상세 원인 수사 중).

#### 3. 신고·초동

동행 신고 → 119 구조대 등 현장 접근.

#### 4. 구조·응급

접근 곤란 지형에서 로프구조 후 이송, 병원서 사망 확인.

#### 5. 기관 역할

강원소방·경찰 공동 조사.

#### 6. 현장 안전·대응 지침(핵심)

노출 구간은 **보호물 간격 단축**, **피치 분할**로 추락거리 제한, 기상·로프길아·확보지점 사전 브리핑 필수.

#### 7. 후속 조치

사고 원인 규명 후 해당 루트 안내·관리 개선 검토.

## 4. 겨울 캠핑(산악·야영지) 일산화탄소 중독 다발 — 2023-11-11~12

### 1. 사고 개요

국내 각지에서 주말 사이 캠핑 일산화탄소(CO) 중독으로 5명 사망 발생(난방·연료기구 사용).

### 2. 원인·경위(보도 기준)

텐트·차박 등 밀폐·불완전 연소 환경에서 CO 축적.

### 3. 신고·초동

의식 저하·두통 등 증상 신고 → 구조대 현장 출동.

### 4. 구조·응급

환기·산소투여·고압산소치료(HBOT) 필요 가능성. 캠핑 CO 중독 국내 역학연구도 다수.

### 5. 기관 역할

지자체·경찰·소방 경각심 고지, 캠핑장 안전점검 확대.

### 6. 현장 안전·대응 지침(핵심)

텐트 내 화기·연소기구 금지, CO 경보기 상시 사용, 환기·연료 취급수칙 준수, 의심 시 즉시 환기·119 신고.

### 7. 후속 조치

동절기 캠핑 CO 경보기 의무화·안전캠페인 확대 필요.

## 5. 네팔 구르자 히말(7,193m) 한파·빙설 붕괴, 원정대 9 명 사망 — 2018-10-11~15

### 1. 사고 개요

한국인 5 명·네팔 가이드 4 명으로 구성된 원정대가 베이스캠프에서 **폭풍·빙설 붕괴**로 전원 사망. 김창호 대장 포함.

### 2. 원인·경위(조사·보도)

강풍·빙설 덩어리 낙하로 텐트·캠프가 파괴되며 다수 사망, 2015 년 이후 최악의 등반 사고로 평가.

### 3. 신고·초동

헬기·현지 구조대 수습 작전 전개.

### 4. 구조·응급

산악·항공 합동 수색·수습, 시신 송환.

### 5. 기관 역할

현지 경찰·항공구조대, 한국 외교당국 협조.

### 6. 현장 안전·대응 지침(핵심)

고지 원정은 **캠프 앵커링·윈드 브레이크·크레바스/사면 위험 분석**, 기상원도 엄수, 야영지 상부 빙설 붕괴 위험 상시 평가.

### 7. 후속 조치

등반계는 **캠프 배치·기상 판단·위험소통** 표준 강화 논의.

## 6. 안나푸르나 트레킹 대설·눈사태 참사 — 2014-10-14

### 1. 사고 개요

사이클론 Hudhud 영향의 이례적 대설·눈사태로 **최소 40~43 명 사망**, 수백 명 구조. 네팔 최악급 트레킹 참사.

### 2. 원인·경위(보도·기록)

열대성 사이클론과 상층 기압골의 결합으로 대설 발생, 토롱라(Thorong La) 등 고개 일대 대규모 조난.

### 3. 신고·초동

헬기·육상 병행 대규모 수색·구조, 통신두절 지역 다수.

### 4. 구조·응급

네팔군·현지구조대가 광범위 구조, 400~600 여 명 단계적 구조.

### 5. 기관 역할

네팔 당국·국제사회 협력, 안전대책·가이드·GPS 추적기 의무화 논의.

### 6. 현장 안전·대응 지침(핵심)

고산 트레킹은 **기상 급변 시 정지·하산 원칙**, 무리한 일정 금지, 통신·위치공유·예비식량·보온계획 필수.

### 7. 후속 조치

트레킹 안전규정·가이드 의무화·정보 제공 강화.